

---

# 2018 행정위원회 유럽연수 보고서

## [ 프랑스, 이탈리아 ]

---

- 연수기간 : 2018. 9. 29.(토) ~ 10. 6.(토) / 6박 8일
- 연수지역 :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 연수인원 : 총 14명(의원 9, 직원 5)
- 연수내용
  - 선진 지방자치제도 우수사례 견학
  - 도시경관 및 도시재생, 관광자원화 현장 벤치마킹



# 목 차

---

1. 연수개요 .....	3
2. 연수일정 .....	3
3. 방문국가 현황 .....	4
4. 연수내용 .....	5
5. 시사점 .....	13

# 1.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8. 9. 29(토) ~ 10. 6(토) / 6박 8일
- 연수지역 : 유럽 2개국(프랑스, 이탈리아)
- 연수목적
  - 선진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발전적인 시책제안
  - 문화·예술·역사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 연수인원 : 총 14명(의원 9, 직원 5)
  - 시의회(9명) : 조대영 행정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 이재안, 강희문, 허병관, 김복자, 김미량, 정광민, 윤희주 의원
  - 사무국(5명) : 박상준 행정전문위원, 윤종기 의사담당, 전찬인 소통담당, 최재형 주무관, 홍재준 주무관

# 2. 연수 일정

날짜	지역	시간	상세일정	비고
1일차 9.29(토)	강릉 인천, 파리	오전 오후	강릉출발, 인천도착 인천국제공항 출발, 파리로착(12시간 소요, 시차 -7시간)	
2일차 9.30(일)	파리	전일	관광자원화 연계를 위한 문화유적 탐방 -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박물관 등	
3일차 10.1(월)	파리	전일	전통과 현대식 건축문화의 공존사례 견학 - (공식예방)라데방스 신도시 - 노트르담 대성당, 에펠탑 등	
4일차 10.2(화)	파리 파리, 로마	전일	파리 관광문화 정책과 관광콘텐츠 벤치마킹 - (공식예방)파리 관광위원회, 몽마르뜨 언덕 등 파리 출발, 로마도착	
5일차 10.3(수)	로마	전일	로마 관광역사문화 정책연구 및 탐방 - (공식예방)로마 관광청 소속 도시문화기구 - 바티칸미술관 등	
6일차 10.4(목)	로마 오르비에토	전일	도시재생사업(슬로우시티 발상지) 우수사례 탐방 - (공식예방)오르비에토 시청, 푸니쿨라(산악열차)	
7일차 10.5(금)	로마	전일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자원화 우수사례 견학 - 콜로세움, 개선문, 판테온 등 로마 출발	
8일차 10.6(토)	인천 강릉	오후 오후	인천 도착 강릉 도착	

### 3. 방문국가 현황

#### 프랑스 [The French Republic]



- 면적 : 644천km<sup>2</sup>(한반도의 약2.9배)
- 인구 : 6,523만명(2018년, 세계 22위)
- 1인당GDP : 44,933\$(2018년, 세계 19위)
- 수도 : 파리(Paris)
- 언어 : 프랑스어
- 정치 : 이원집정제(대통령제+의회제)
- 의회 : 양원제(상원 348명, 하원 577명)
- 종교 : 가톨릭(81%), 무슬림(7%), 개신교 등

#### 이탈리아 [Italian Republic]



- 면적 : 301천km<sup>2</sup>(한반도의 약1.3배)
- 인구 : 5,929만명(2018년, 세계 23위)
- 1인당GDP : 35,913\$(2018년, 세계 25위)
- 수도 : 로마(Rome)
- 언어 : 이탈리아어
- 정치 : 공화제(내각책임제)
- 의회 : 양원제(상원 315명, 하원 630명)
- 종교 : 가톨릭(80%), 기타

○ 유럽 대륙의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 유럽에서 3번째로 큰 나라이다.

987년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카페 왕조 창시로 최초의 국가가 형성되었다. 절대왕정과 제정, 공화정을 반복하다가 1871년 공화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른다.

○ (프랑스 대혁명) 1789년 7월 14일 프랑스에서 절대주의 왕조를 무너뜨린 대혁명이다. 당시 프랑스 국토의 90% 이상이 왕과 귀족들의 차지였고, 그들은 일반 시민과 농민들을 착취하며 사치만을 일삼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자유·평등·박애를 부르짖으며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혁명을 일으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하고, 부르봉 왕조를 무너뜨린 뒤 공화국을 세웠다.

프랑스 대혁명은 세계 모든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자유화의 불길은 견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되었다.

○ 유럽 중남부에 위치, 5세기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국토가 분열되었다가 1861년 3월 17일 당시 오스트리아 영토였던 북동부와 교황이 지배하던 로마를 제외하고 통일되어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고 1870년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

○ 정식명칭은 이탈리아공화국이다. 지중해 중앙부, 북서에서 남동으로 약 1200km에 걸쳐 장화 모양을 한 반도와 시칠리아·사르데냐 두 섬으로 구성된다. 행정구역은 15개주와 5개 자치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탈리아 왕국은 체제상으로는 입헌군주제였으며, 1913년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1946년 6월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새 헌법에 의한 공화제가 1948년 1월부터 출범.

○ 1884년 6월 26일에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처음으로 국교를 맺었으며, 대한민국과는 1956년 11월 24일에 수교.

## 4. 주요 연수내용

### 1

### 프랑스 (파리)

#### ① 파리관광위원회(공식예방)

##### ○ 3가지 개발전략(2021년까지 5개년 계획)

- ①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좋은 인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방안
  - 관광 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 봉사자를 50여 곳에 배치하고, 10곳을 포인트로 Information desk를 운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
  - 최근 교통수단으로 박물관등의 주요 관광지를 입장 할 때 하나로 묶어서 사용 할 수 있는 원데이 패스를 운영 결정 함.
- ② 120여 군데(호텔, 식당, 택시 등)를 관광객을 가장하여 압행 평가
  -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
  - 프랑스 관광객 중 비즈니스 관광객이 50%가 되고, 파리 학회, 살롱 등을 포함 한 Pack Accueil(안내팩)을 공항에서부터 서비스 함.
- ③ 파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win-win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원주민을 위한 마을 축제 개최
  - 크고 작은 개인 유적지를 홍보 할 수 있는 자리 마련  
(예: 마을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

※ 프랑스 관광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런던, 베를린이었다. 베를린은 젊은층이 선호하고 비즈니스 관광은 런던과, 베를린 모두 경쟁력이 있고, 레저면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과의 경쟁이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실현 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역할로 현재 파리는 세계관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 주요 토론내용

- 파리는 관광분야가 외교부 소속임.
- 협회의 재정적 지원은 지방정부에서 받고 있음.
- 2016 테러 이후 파리시와 관광청이 협력해서 관광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만듦  
(예, 베르사유궁전에 컨벤션센터 조성)
- 관광객의 개념을 1박 이상을 하는 머무는 사람으로 정의함.
-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파리관광객은 외국인이 43%, 내국인 57%임.
- 파리관광청은 2018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관광객이 도시의 실업,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긴밀한 요소로 역할하고 있어 Over Tourisme에 대한 문제는 미미함.
- 정책적인 면에서도 주민보호를 위한 제한을 두기도 하고, 기반시설 혜택도 주고 있어 마을의 경제적 원천이 됨.
- 한국은 파리관광 순위에서 16번째로 높고 80%가 휴가 때 방문하며, 처음오는 사람이 63%임(관광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구체적임)
- 한국 관광객은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아 주저없이 다님.

※ 파리관광이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한불수교 120주년을 기점으로 관광쿼터(quarter)를 통해 2017년 모든 업체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여 디너 워크숍을 추진하여 한국 기업들과 MOU를 맺으며 한국관광객을 모셔오는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성공함.



## ② 라데방스 신도시 (공식예방)

1958년부터 30여년에 걸쳐 장기 개발계획구상을 마련하여 진행된 **보행자 중심의 대형 상업도시**. 세계적으로 성공한 신도시 개발사례로 꼽힌다. 면적은 564만 m<sup>2</sup>로 서울 마곡지구보다 2배 가까이 넓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만 18만 명에 이른다.

모든 차량은 지하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상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고 인도와 광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 보행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놓았다.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파리를 대신해 70여 개의 마천루와 공원 주거지가 조성되었다. 토탈, 탈레스 등 대기업을 포함해 500여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라데방스 전경



종합관광안내소

### ③ 베르사유 궁전

당초 별장이었던 곳을 루이 14세 때 대궁전으로 증축. 궁정 의식을 치르거나 외국 특사를 맞을 때 사용되었고, 화려한 내부 장식을 한 '거울의 방', '루이 14세의 방', '전쟁의 방', '평화의 방' 등이 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가구·장식품 등이 많이 없어졌으나, 궁전 중앙부, 예배당, 극장 등을 제외한 주요 부분은 역사 미술관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궁전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다. 당시 귀족들은 정원 곳곳에서 용변을 보았으며 왕도 볼일이 급할 땐 시종을 불러 용변을 보았다고 한다. 루이 14세부터 프랑스의 향수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는 피혁(가죽)제품에서 나는 특유의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원의 용변냄새를 감추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다.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정원, 대운하



한국어 지도

### ④ 루브르 박물관

정문에는 유리 피라미드가 있고, 박물관에는 매표기도 설치되어 있다. 영국의 대영 박물관, 바티칸시티의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유럽 외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한 회화, 조각 등 수많은 예술품은 오늘날 30만점 가량에 이른다.

- 총 3개관 : 드농관, 리슐리외관, 쉴리관

1. 드농관(DENON) : 이집트 미술, 이슬람 미술, 기원전 고대 그리스 작품, 유럽 조각 작품 등
2. 리슐리외관(RICHELIEU) :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란 작품, 유럽 조각작품 등
3. 쉴리관(SULLY) : 소묘와 판화 전시실,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 로마의 작품 등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

## ⑤ 노트르담 대성당

1345년 완공되었고 이후 수세기동안 다양하게 수정. 노트르담은 "우리들의 귀부인"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단어로 "성모 마리아"를 뜻한다. 고딕 양식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에서 첫째가는 기독교 숭배의 장이자 국가 수장의 장례식 등 국가 행사가 개최되는 곳이다.

1793년 무렵, 대부분의 조각상과 세공은 파괴되고, 종교 유물들은 녹여지고, 성당은 식량 저장 창고로 쓰이기도 하였으나, 1831년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 이후, 심하게 파손되어 헐릴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성당을 살리자는 캠페인이 뒤이어 일어났고, 1845년에는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다.



성당 내부



노트르담 대성당

## ⑥ 에펠탑 : 1889년 건립된 파리의 상징적 건축물

1889년 프랑스혁명 100돌 기념 '파리 만국박람회(EXPO)' 때 세워진 높이 약 320m (탑 300m, 꼭대기 안테나 20m)의 격자형 철탑. 철로 대표되는 상징적 디자인이며 에펠은 이 탑을 세운 프랑스 건축가의 이름이다. 건축기간은 약 25개월이다. 1991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에펠탑 전망대에서는 파리 시내와 멀리 몽마르뜨 언덕이 보인다. 세느강 유람선을 타면 에펠탑 주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에펠탑



에펠탑에서 바라본 전망



### ① 로마 도시문화기구 '제테마' (공식예방)

#### ○ 제테마 역할

- 1998년 사설기관으로 설립, 2006년 로마시청의 산하기관으로 편제
- 로마시 소속의 21개 박물관에 대해 티켓부터 청소까지 모든 것을 총괄관리.  
(이탈리아에서도 좋은 사례로 세계적인 사례임)
- 뉴스레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다양한 언어로 박물관을 홍보하여 효과를 보고 있음
- 유명한 기업(패션)의 런칭쇼, 제품설명회를 박물관의 공간에서 활용함  
(국제문학페스티벌 : 로마시청에서 하는 가장 큰 축제)
- 클래식한 로마 고대 유물들을 어떻게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추는지 고민하여 현대 미술가 전시회를 로마 고대 장소에서 진행함
- 12년전부터 로마패스 도입, 연간 60만장이 팔리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림  
(모든 대중교통 이용, 박물관은 처음 2곳까지만 무료 나머지는 유료)
-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제공
  - 인포메이션 포인트에서 정보 제공
  - 콜센터에서 안내
  - 소셜미디어의 광고



※ 로마시와 제테마는, 관광객이 로마 유적을 보면서 감성을 자극 받았으면 하는 로마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해야겠다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 젊은 세대들이 등한시 할 수 있는데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비즈니스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킴.

#### ○ 주요 토론내용

- 로마시 소속 21개 박물관의 지난해 방문객은 1,500만 정도
- 임대료 등 관광수입은 유적지 보수·복원하는 비용으로 재투자 함.
- 로마패스는 모든 박물관을 공짜로 하면 패스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박물관 두 곳까지만 무료이고 이후부터는 일부 유상임.
- 관광 홍보는 공공기관, 파워블러거, 인플루언서 등이 함께 공동역할을 함으로써 상승작용이 가능한 것임.
- 현대사회에서는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웹마케팅이 이 시대의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마케팅 방법중의 하나라고 봄.

## ② 오르비에토 (시청 공식예방)

1999년부터 시작된 ‘느림의 미학’ 슬로우시티 운동의 발상지이며 국제슬로우시티본부. 인구 3만여명, 연간 관광객 200만여명의 로마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오르비에토는 매력적인 이탈리아 소도시 중 하나이다. 로마제국이 생기기도 전에 해발 195m 바위산위에 만들어진 고대도시. 백포도주 ‘오르비에토’ 로 유명하다.

### ○ 주요 토론내용

- 1998년부터 도시계획을 시작했고 그 지역의 특징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
- 미래세대를 위해 광장하나를 만드는데도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서 계획 함
- 후손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주력
- 고대 유물로써 찾아오게 하고 현대를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도시로 만드는 게 시청의 최대 목표임.

※ 오르비에토 성당 : 300여년에 걸쳐 완성

#### ■ 슬로우푸드 운동의 시작

- 1985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우푸드 운동은, 로마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진출하면서 이탈리아 전통음식이 위협받자 ‘달팽이’ 로 상징되는 슬로우푸드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
- 처음에는 주민들도 불편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지금의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슬로우푸드 운동으로 마을을 떠난 사람은 거의 없는 반면, 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을 잇는 2세들이 늘어 공예 등 전통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함.

※ 우리나라 슬로우시티 : 전남 신안, 장흥, 담양,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후니쿨라(산악열차)



오르비에토 대성당



시청 계단(턱이낮고, 면이길다)



오르비에토 시청 공식예방

### ③ 바티칸 미술관

바티칸의 교황궁내에 있는 미술관이다. 16세기 교황 율리오 2세에 의해 설립되었다. 역대 로마 교황이 수집한 방대한 미술품·고문서·자료를 수장하고, 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대화가에 의한 내부의 벽화·장식으로 유명하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바티칸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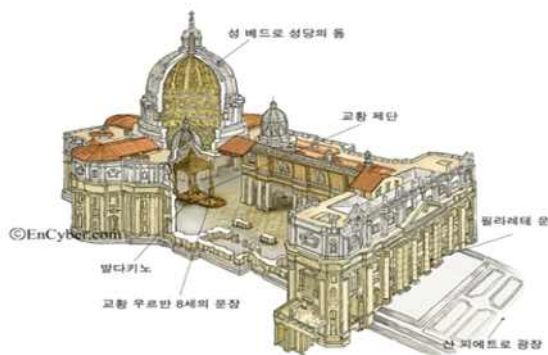


바티칸 미술관 천정

### ④ 성 베드로 성당

로마 가톨릭교의 정신적인 수도이자, 가톨릭 순례 여행의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바티칸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성 베드로 대성당은 349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베드로 성인의 묘지 위에 세워졌고 실베스트로 교황이 396년에 대성전으로 축성하였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이민족의 잦은 약탈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그때마다 보수작업이 뒤따르긴 했으나 원래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다.

마침내 1503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상갈로의 줄리아노에게 성전의 재건축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브라만테의 설계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많은 건축가들의 손을 거쳐 1626년에 완공되었다.



성 베드로성당 구조(출처 : 지식백과)



교황의 제대를 덮고 있는 발다키노

## ⑤ 콜로세움, 판테온

### ◦ 콜로세움

70년경에 건설을 시작하여 80년에 완성. 완공검투사들의 대결과 호화로운 구경거리가 펼쳐지던 거대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처음에는 플라비아누스 원형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5만여명을 수용.

### ◦ 판테온

118~128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건축되었으며 다신교였던 로마의 모든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이다. 판테온이라는 명칭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판(Pan)과 신을 뜻하는 테온(Theon)의 합성어. 채광은 돔 정상에 설치된 지름 9m의 천창뿐이며, 벽면에는 창문이 없다. 바닥 곳곳에는 빗물 배수구멍이 뚫려있다. 서양건축사상 불후의 건축명작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과 콜로세움



판테온 천장과 바닥의 배수구멍

## ⑥ 스페인 광장

로마 시내에서 가장 활기차고 화려한 지역으로 17세기에 이곳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었던 데에서 광장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특히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배경으로 나온 스페인 계단 주변이 유명하다. 광장은 수세기 동안 로마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처이자 여행객들에게도 약속 장소로 애용되는 곳이다. 봄철에는 진달래꽃 화분으로 장식해 로마 최대의 꽃 잔치가 열린다.



스페인 광장



버스킹

## 5. 시사점 및 특이사항

### ① 프랑스 라데방스 신도시

- 건축물에 네온사인 간판이 거의 없어 거리가 깨끗하고 매력적임.
- 모든 것이 공유문화다. 공유 경제의 긍정성을 시사. (우버택시 도입 등)
- 상젤리제 거리를 비롯해 파리지 모든 도로의 인도폭이 도로폭과 거의 동일하다. 보행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시도 차도를 확장하는 것보다 인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 ② 파리 관광정책

- 관광정책과 문화재 관리에 있어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극대화 함. (관광과 경제의 밀접함에 대한 인식으로 인력 및 투자 증대를 통한 성과를 냄)
- 우리시의 관광부서만으로는 관광정책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원 활용과 민간 기구에 대한 지원 필요
- 관광 관련학과 학생 및 학교와의 긴밀한 교류 협력이 요구됨.
- 강릉시는 대표 축제가 거점이 없고 시민주체성이 부재 함. 커피축제 등 시민, 마을의 주체성을 담보하는 축제 형태를 지향.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 축제로의 동기 필요)
-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우리시가 MICE 산업을 비롯한 비즈니스 관광산업을 선점·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관광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전략들을 마련해 나가야 함.

### ③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 개발계획에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함.
- 모든 걸 분석한 지도를 통해 세밀한 기초조사의 중요성 시사.
- 도시를 계획 할 때 시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을 같이 계획 함.
- 주민이 살고 있는 공간이 역사적 유물·유적지와 공존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유물·유적을 후대에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함. (미래세대를 위해 향후 5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
- 시청 계단은 높이가 매우 낮은 반면 폭은 넓은 구조임. 소소한 부분에도 누구나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를 설계하였음 -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대 필요.
- 구 도심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옛것을 보존함으로써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뉴딜정책 제안(예: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④ 로마패스

- 강릉에도 문화유적지와 문화예술 공연을 연계한 원데이-패스 도입을 통해 유적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체류형 관광 도모.

#### ⑤ 로마 관광마케팅 전략

- 강릉의 오죽헌, 한옥마을, 선교장, 허균 생가터, 안목커피거리 등에서 다양한 작품전시회, 발표회, 공연, 버스킹, 쇼 등의 기획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 홍보 필요
- 영화 ‘로마의 휴일’의 촬영지인 로마 스페인 광장처럼, 강릉이 담긴 드라마 영화 촬영지 등 일대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예) 도깨비 촬영지, 방탄소년단 앨범 촬영지 등
- 스페인 광장의 모든 거리에서 버스킹이 활성화되어 있음. 강릉역 ~ 월화거리 ~ 월화교 구간의 버스킹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신선한 볼거리 제공.
- 관광객이 찾아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온라인을 통한 능동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절실히 요구.